

‘인사쇼핑’ 시도에 무주공산... 동병상련 두 중기흡쇼핑

흡쇼핑, 국회 국정감사·압수수색
아임쇼핑, 대표이사 돌연 해임
정치권 ‘입김’·중기부 ‘월권’ 논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맡고 있는 대표 TV흡쇼핑인 흡쇼핑과 공영흡쇼핑(아임쇼핑)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흡쇼핑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이후 이어진 압수수색 등 수 차례의 경찰 조사와 최근의 채용비리 수사결과 발표 등이, 아임쇼핑은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를 돌연 해임시키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월권’이 논란이다.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업을 영위하는 이들 흡쇼핑사가 최근 수개월새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것이다. 흡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인 민간기업이고 아임쇼핑은 기타공공기관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흡쇼핑은 최근

경찰이 채용비리로 강남훈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곤경에 처했다. 경찰은 흡쇼핑이 2011년과 2013년 당시 공채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줘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가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그런데 이날 경찰의 발표는 흡쇼핑 일부 사외이사가 언론에 제보를 통해 중기부가 강남훈 대표 해임 등 사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려한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 뒤 불과 하루만의 일이다. 중기부 공무원이 흡쇼핑 사외이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강 대표 해임 안건을 다루기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서에 사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전화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임을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등기부상 재적이사가 8명인 흡쇼핑은 3명이 요구하면 이사회를 개최해야한다. 현재 1명의 이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지만 정원 8명 중에서 5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되고,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그러나 3명의 이사가 사인한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받아든 강 대표는 정당한 해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이사 3명은 다시 이달 21일 이사회를 열겠다는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흡쇼핑 이사회 개최 일정 알려드립니다! 3월 21일(수) 오전 10시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 확정되는 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000-’라고 쓴 내용이 이사들에게 휴대폰으로 통지서보다 먼저 발송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흡쇼핑의 지분 15%를 갖고 있는 중기유통센터는 중기부 산하기관이다. 하지만 이사회 소집권한은 이사들만 갖고 있을 뿐 주주들은 권한이 없다. 게다가 이후 도착한 이사회 소집통지서엔 이사들의 서명도 없어 무효라는 게 흡쇼핑의 법률적 판단이다. 이후 흡쇼핑은 이사들에게 ‘21일 이사회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강 대표의 해임을 원하는 쪽과 외압을 막으려는 쪽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 하면서 흡쇼핑 이사회가 21일 열릴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계에선 흡쇼핑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난해 12월 아임쇼핑 이영필 대표 해임건을 떠올리고 있다. 지난해 4월 당시 연임이 확정되며 당초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던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 아임쇼핑 임시 주주총

회에서 돌연 해임됐다. 이 대표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해임된 이유를 지금도 잘 모르겠다”면서 도 말을 아꼈다. 당시 업계에선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이 대표에 대한 외압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정만 있었다. 올해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아임쇼핑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주주로 사실상 중기부 산하기관이다. 아임쇼핑은 대표이사가 자리가 빈 지 3개월 가까이 됐지만 새 대표 선정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도 아직 꾸리지 않은 상태. 한편 이들을 포함한 중소기업업 관련 기관에도 최근 정치 바람이 솔솔 불면서 중기중앙회 신임 감사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정 모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자리에도 전직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 앉으려다가 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가전에 IoT 역량 강화 ‘1100억’ 지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중소가전에 1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LH공사 등과 협력해 1만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IoT 스마트 홈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지난 16일 전자부품연구원 광주 본부에서 열린 IoT 가전 및 스마트 홈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전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스마트 홈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LH공사 등 공공건설사와 협력을 통해 1만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규모 실증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전, 통신, 서비스,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홈 발전 협의체’를 운영해 ▲기술 로드맵 및 중소기업 기술 지원 ▲빅데이터 기반 홈 서비스 창출 ▲규제, 표준화 논의 ▲스마트 홈 단지 건설 및 실증 등 이업종 간 협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세종=최신호 기자 grandtrust@

다음으로 중소가전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정부예산 1129억 원을 중소가전에 투자해 취약 분야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IoT 센서 등 부품을 비롯해 차세대 가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홈로봇 분야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IoT 가전 시장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가전 에너지효율등급과 수요관리(DR) 제도에 IoT 가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선 기반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도 무선 기준으로 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백운규 장관은 “가전에 IoT가 접목되면서 단순 가전제품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감, 안전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스마트 홈 서비스를 확대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는 IoT 가전을 통한 스마트 홈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자 체감 서비스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호 기자 grandtrust@

CJ대한통운, 러 페스코와 협업 MOU

한반도 신성장동력 ‘북방물류’ 본격 진출

CJ대한통운이 러시아 물류기업과 손잡고 ‘북방물류’에 본격 진출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 CJ인재원에서 러시아 페스코(FESCO)사와 전략적 협업 및 공동 사업개발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북방물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으로 대표되는 북방물류는 ‘한반도 신성장동력’으로 불리는 북방경제협력의 핵심사업으로 최근 한반도 경제와 맞물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페스코사는 1880년 설립된 철도, 항만, 해운 등 다양한 물류사업을 운영중인 러시아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으로 블라디보스톡 항만 최대주주이면서 러시아 최대의 민간 컨테이너 선사다. 또 화물기차만 1만7000대를 보유한 러시아 10대 화물기차 운송사로 TSR 등 극동지역 주요 내륙 철도 운송업체이기도 하다. 특히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나진 사이에 위치해 북·중·러 핵심 물류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권을 가진 수마(SUMMA) 그룹이 페스코 사지분의 49.9%를 가진 최대주이기도



(왼쪽부터)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페스코(FESCO)사 알렉산더 이슬린스 대표, 주한러시아대사관 막심 볼코프 부대사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하다. CJ대한통운과 페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라시아 전지역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물류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형 플랜트 시공사업 등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사업을 비롯해 프로젝트 물류 분야에서 정보공유, 협업수주 등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합성석유 플랜트(UGTL)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약 내용에는 돈-불가강 운하이용 협력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

함됐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시베리아 등은 최근 대형플랜트 건설이 집중되고 있어 CJ대한통운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페스코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결합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으로 불리는 북방경제협력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페스코는 자사 운송인프라를 활용해 유라시아 물류 핵심 인프라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운송사업에 CJ대한통운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링크웨어 슈퍼HD 블랙박스 출시



링크웨어는 슈퍼HD영상 화질과 패스트부트 솔루션을 탑재한 신제품 블랙박스 ‘아이나비 레인저 S(Ranger S)(사진)’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방 슈퍼HD영상 화질을 탑재한 ‘아이나비 레인저 S’는 기존 FHD의 1080 픽셀에서 향상된 1296 픽셀을 구현하며 보다 개선된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야간에도 링크웨어의 이미지시그널프로세싱(ISP)과 실시간 영상처리 기술이 적용된 영상 보정 솔루션인 ‘나이트비전’이 적용돼 저조도의 어두운 주차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운전지원시스템(ADAS)도 갖췄다. ▲신호대기 및 정차 후 출발할 수 있는 ‘앞차 출발 알림(FVDW)’ ▲주행 중 갑자기 차선을 벗어날 경우 알려주는 ‘차선 이탈 감지시스템(LDWS)’ 등이 대표적이다. 또 위치, 속도, 경로 등의 정보지원이 가능한 아이나비 블랙박스 전용 외장 GPS인 G-마우스가 기본 적용돼 과속단속 지점 등을 알려주는 안전운행도우미 기능도 갖췄다. /김승호 기자

유한킴벌리 ‘시니어케어 매니저’ 모집

유한킴벌리는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5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2018시니어케어 매니저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종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시니어케어 매니저들은 6개월 동안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 시니어 시설에서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위생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엔 총 60명의 시니어케어매니저가 146개 시니어 시설에서 강의 활동을 했다. 올해엔 새로 선발하는 이들 30명과 함께 총 90여명의 시니어 강사가 200여곳의 시설에서 활동하



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니어는 이달 30일까지 함께일하는재단에 우편이나 방문 등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니어케어 매니저는 시니어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전문가형 일자리로 교육과 함께 수당 및 활동비를 제공한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6년부터 시니어케어 매니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